

광주 북구의회 상임위 '무용론' 확산

경북위 2차 추경서 삭감예산, 예결위서 '부활' 예결위 9명중 4명 경북위... 거수기 의회 '전략'

광주 북구의회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되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예결위 위원 가운데 다수가 경북위 위원으로 소속된 만큼 수적 우세를 악용해 예산 심의 권한을 남용했다는 지적과 함께 상임위 결정이 반복되는 추경이 빚어지면서 '상임위 무용론'마저 제기되고 있다.

12일 북구청과 북구의회 등에 따르면 구의회는 지난 9일 오전 제272회 임시회를 열고 예결위가 제출한 2021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논란이 됐던 '마음건강힐링키트(장애인 코로나19 극복지원)' 예산 2,000만원의 경우 상임위원 경북위에서 2,000만 원

전액을 삭감했지만, 예결위에서 되살아난 뒤 이날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앞서 경북위는 지난 3일 타 부서와 중복된 유사사업이라고 판단해 전액 삭감한 바 있다.

당시 경북위 A 의원은 "경북위에 소속된 6명 의원 전원이 집행부에서 올린 마음건강힐링키트 추경 예산을 삭감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코로나블루 극복 취약계층 응원키트 지원", '취약계층 어르신 영양대백 꾸러미 지원'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예결위는 재심사 과정에서 경북위 의결을 무시한 채 삭감 예산을 전액 되살렸고,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예산안 심의) 4항에 따라 경북위에 재심사를

요청해 5대 1의 표결로 삭감된 예산을 전액 증액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위 위원이자 예결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B 의원은 "당초 경북위에서는 유사 중복 사업이라고 판단해 삭감했지만, 집행부에서 설명한 '장애인 관례해서 힘든 분들을 도운다'는 사업 취지가 좋아서 긍정적으로 검토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반면 A 의원은 "전년도에도 코로나가 있었고 올해도 코로나가 있었는데 이 계획을 세울 예정이었다면 추경이 아닌 본 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다"며 "집행부에서는 '장애인시설의 생산품이 코로나 때문에 판매가 저조한 부분이 있어 상생하는 의미로 지원한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오히려 장애인시설 매출은 이 기간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예결위에서 부활하는 관행은 상임위의 예산심사 권한을 침해할 수 있어 보완이 시급하

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북위 위원들이 삭감한 예산을 충분한 논의와 토론 없이 다시 되살린 것처럼 집행부와 각종 단체의 로비와 압력이 작용해 '거수기 의회'로 전략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또, 예결위 위원 9명 가운데 4명이 경북위 위원으로 다수가 소속된 만큼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다수결의 원칙대로 예산안이 통과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될 수 있어 상임위원으로 예결위 위원을 각각 3명씩 재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북구청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상반기 1회 추경 당시에도 시설 집합금지로 인해 장애인에 어려움이 있다보니 2,0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지원했다"면서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우울감을 호소하는 장애인 단체나 시설을 위로하기 위해 이번에도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광산구, 휴블런스 서비스 시범 사업

이동부터 정서·정보까지...건강약자 윈스톱 사회돌봄

광주 광산구가 초고령사회 복지의 새로운 기준이 될 '휴블런스' 서비스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12일 광산구에 따르면 '휴블런스'는 '휴먼(사람)'과 '앰블런스'의 합성어로, 지속적으로 병원에 다녀야 함에도 가족 돌봄이 어려운 시민을 위한 '건강약자 병원동행' 서비스다.

지난 4월 행정안전부 2021년 국민정책디자인 지원과제에 선정돼 5월 국민정책디자인단이 출범하며 정책 이해, 현장 및 이용대상자 심층조사, 아이디어 발전하기 등이 진행됐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한 광산구는 지난 달 26일부터 우선동영구 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시작했다. 현재까지 재활병원 입원자, 홀몸노인 등 5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다. 이 중에는 청주에 거주하는 자녀가 먼저 광주에 있는 아버지를 위해 동행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한 사례도 있다.

이들의 외래 진료 시 광산시민수당과 연계해 확보한 전문 매니저들이 투입된다. 집을 나서 병원으로 이동할 때부터 병원에 도착해 진료를 받고 나올 때까지 모

든 과정을 곁에서 동행하며 주민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제공한다.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의 건강을 돌보는 늘행복 마을건강센터가 중심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

광산구는 시범 운영을 통해 나타난 문제나 개선점에 대해선 국민정책디자인단과 함께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휴블런스'를 단순한 이동지원을 넘어 정서와 정보 동행까지 아우르는 윈스톱 사회서비스 모형으로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특히,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작업도 지속하고 있다.

또 지역 복지관, 동 주민센터, 돌봄 수행기관 등과 연계해 추가 대상자를 발굴, 연말까지 시범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휴블런스 시범 운영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사회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작점이다"며 "적정한 병원 이용, 고립 해소 등 주민 삶 전반을 보살피는 복지 안전망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영봉 기자

고용지원금 빼돌린 일당 검거 브로커 2명 구속 14명 불구속

코로나19 상황에 정부가 요건을 완화한 시기를 틈타 고용 관련 정책자금을 불법으로 빼돌린 일당 16명이 무더기로 검출돼 송치된다.

12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고용유지 지원금 등 정부 정책 자금을 불법으로 받아 편취한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씨(29) 등 브로커 2명을 구속 송치하고, 사업주 1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정부의 정책자금인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 비용 대부금, 두리누리 사업자금, 청년 디지털 보조금 등 총 3억원을 불법으로 받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 A씨는 시험 삼아 해본 하위로 지원금을 가로채는 행위가 수월하게 진행되자, 다른 브로커 B씨를 동원해 사업주와 가짜 직원을 본격적으로 모집, 범행을 저질렀다. 각 사업주는 영세한 사업체의 소유주이거나, 폐이커퍼니 등을 차려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받은 총 3억원의 지원자금을 브로커 50%, 사업주 20%, 가짜 직원 30% 등으로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최환준 기자



전문대 입시정보 한 곳에

11일 오전 동강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2022학년도 호남권(광주·전남) 전문대학 입학 정보 박람회'에 참가한 학생·학부모들이 각 대학 부스에서 관계자들로부터 학과 소개를 받고 있다. /김성훈 기자

'흠친 차량으로 과속질주' 10대 3명 검거

차량을 훔치고, 흠친 차로 도심에서 과속으로 운전하다 주차 차량 4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10대 3명이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10일 차량을 훔쳐 운전하고, 흠친 차량으로 사고를 내

고 도주한 혐의(절도·도주차량)로 10대 중학생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3명 중 A군은 동승자와 함께 이날 오전 5시 20분께 북구 오치동의 한 일방로에서 포르테 차량으로 길 가 주차 차량 4

대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 사고 직후 이들의 도주로를 추적한 경찰은 4시간여 만에 10대 3명을 검거했다.

A군은 무면허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3명 중 2명이 차량을 훔쳤고 다른 1명은 이날 사고 차량에 탑승한 것으로 추정돼 조사 중이다. /최환준 기자

북구, AR게임 '비엔날레 런닝맨' 운영

비엔날레전시관·중외공원 일원서 진행

광주 북구는 제9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기간 동안 비엔날레전시관과 중외공원 일원에서 게임형 증강현실 프로그램인 '비엔날레 런닝맨'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북구 맛있는 예술여행센터가 디자인비엔날레 홍보 및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으며, 포켓몬 고(GO)와 같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기반으로 하는 증강현실 게임으로 진행된다.

게임 참여자는 증강현실(AR)이 구현되는 활과 스마트폰을 사용해 미술품을 흠치려는 좀비 도둑과 싸우며 임무를 수

행하게 된다. 임무를 완수 후 게임이 종료되면 체험 인증서와 마패를 지급받는다.

비엔날레전시관 광장에 있는 체험부스를 방문하면 게임에 참여할 수 있고 비용은 1,000원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스마트 관광프로그램인 비엔날레 런닝맨이 디자인비엔날레 관람과 중외공원 문화예술벨트 여행에 특별한 재미를 더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역의 우수한 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여행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영산강청 추석연휴 환경오염 특별감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추석 연휴 오염물질 불법배출 등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13일부터 26일까지 특별감시 활동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드론, 이동식측정차량 등 과학장비를 활용한 비대면 순찰을 강화하고, 연휴

기간 전·중 2단계로 구분해 추진한다. 폐기물 불법투기, 오염물질 불법배출 등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국번

없이 128(휴대전화는 지역번호+128) 또는 영산강유역환경청 상황실(062-410-5115)로 전화해 신고할 수 있다. /우성진 기자

상무매매 (상무지구)	장성 토지(매매 분양)	당진신축(원룸매매)	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중급반]
<p>1) 40평(전용) 2억 5천(용1억) 보1천 월100</p> <p>2) 60평(전용) 4억 5천(용3억) 보2천 월200</p> <p>3) 140평(분양) 시세 9억 매가 7억 (용 4억) 월수익 280만 (보4천)</p> <p>(사무실 리모델링함,빠,유휴,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p> <p>010-6670-9800</p>	<p>투자확신/강력추천!</p> <p>광주에서 20분 (6M 도로접) 장성담 (호) 2분, 장성 IC. 5분</p> <p>총 1760평 (150평,200평,500평, 분할가능)</p> <p>[전원주택, 물류창고, 주말농장, 별장, 투자적합]</p> <p>010-6670-9800</p>	<p>◆ 월수익 750만</p> <p>◆ 연수익 9천만</p> <p>◆ 매매 13억 (용6억 5천)</p> <p>▶ 임대관리 직접해드림 10년간 임대걱정 없음. 대산향10분, 화력발전소 5분 현대오일뱅크, 엘지정유, 입주및공사시작, 엘리베이터 있음, 주인세대있음.</p> <p>010-6670-9800</p>	<p>특수경매전문(유치권, 법지, 지분)</p> <p>① 기초반, 실전 (기초이론,실전) ② 중급반, 실전 (중급이론,실전) ③ 고급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엔피엘전문) ④ 전문반 모집(직업가능,수익가능)</p> <p>• 전문반무료제공 - 책상, 컴퓨터 제공,매주1회물건스터디</p> <p>광주</p> <p>서구 치평동(아파트) ▶ 감정가 1억6천 → 최저가 1억1천 (9/14) 광산구 도산동(근린상가) ▶ 감정가 5억1천 → 최저가 2억3천 (9/16) 북구 문흥동(근린상가) ▶ 감정가 13억4천 → 최저가 9억5천 (9/17) 북구 신용동(근린상가) ▶ 감정가 2억9천 → 최저가 2억 (9/17) 광산구 우산동(근린주택) ▶ 감정가 18억 → 최저가 13억 (9/28) 북구 용봉동(다가구원룸) ▶ 감정가 8억3천 → 최저가 5억8천 (9/28) 광산구 쌍암동(근린상가) ▶ 감정가 14억9천 → 최저가 6억6천 (9/28)</p> <p>전남</p> <p>화순군 도곡면(근린시설) ▶ 감정가 10억 → 최저가 5억9천 (9/16) 화순군 백야면 (근린시설) ▶ 감정가 13억 → 최저가 4억8천 (9/28) 여수시 신기동(근린주택) ▶ 감정가 12억 → 최저가 8억 (10/5) 장성군 황룡면 (공정) ▶ 감정가 68억 → 최저가 19억 (10/6) 목포시 대양동(임야) ▶ 감정가 2억7천 → 최저가 7천 (10/12)</p> <p>시외</p> <p>충남 홍성군 장곡면(근린주택) ▶ 감정가 6억3천 → 최저가 2억1천 (9/14) 부안군 변산면(숙박시설) ▶ 감정가 4억 5천 → 최저가 2억 2천 (9/27)</p> <p>062-382-5500</p>